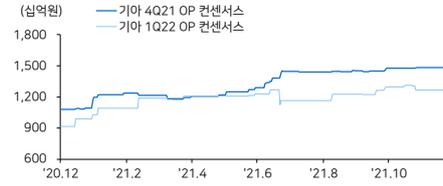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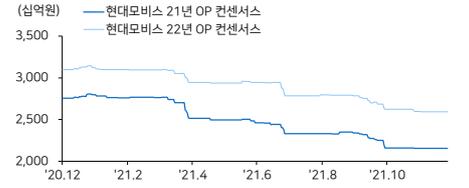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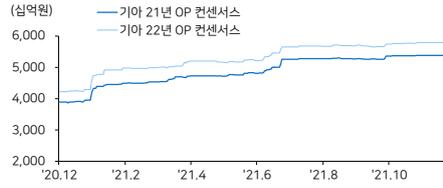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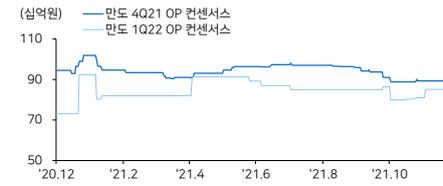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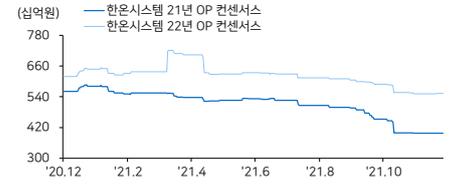


## 커버리지 컨센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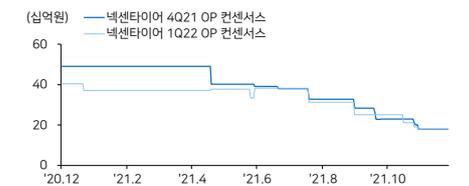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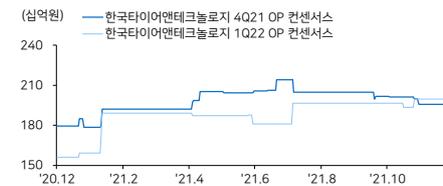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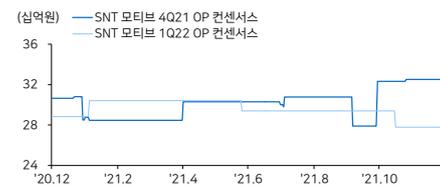
###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 현대차·기아, 미국 올해도 기대...중국엔 여전히 고민 (뉴스1)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의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은 고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미국 시장은 반도체 부족 문제 점진적 해소, 대기수요 유입과 수요 회복으로 판매 증가를 전망함. <https://bit.ly/32C4XJV>

### "운전대서 손 떼면..." 현대차 '아심작' 을 하반기 나온다 (한국경제)

현대차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레벨 3 자율주행차 G90을 올해 하반기 출시할 예정. 현대차는 레벨 3 적용을 위해 차량에 라이더(LiDAR)를 적용키로 함. <https://bit.ly/32C3gw3>

### Tesla surmounts supply chain woes with blockbuster Q4 deliveries (Reuters)

Tesla는 4분기 308,600대의 차량을 인도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263,026대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21년 4분기 Tesla 인도량은 yoy +70% 증가한 수치이며, qoq로도 +30% 증가한 기록적인 수치. <https://reut.rs/3pNuicq>

### BYD Sets Target To Sell Up To 1.2 Million NEVs In 2022 (Inside Evs)

BYD가 '21년 11월말의 9만 대 이상의 NEV(BEV + PHEV)를 판매하며 큰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21년 목표인 60만대 판매 달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22년 새로운 전망은 연간 120만대의 NEV(BEV 60만대, PHEV 60만대) 판매. <https://bit.ly/3pLub0s>

### 현대차, 연초 아이오닉5 러시아 '출격'...내년 현지 생산도 '모색' (THE GURU)

현대차는 연초 러시아 시장에 아이오닉 5를 출시할 예정이며, 내년 부터 아바토르 공장에서도 아이오닉5를 현지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 또한 유럽에서 모빌리티 구독서비스 '모션 서비스스퀼럼'을 강화 중. <https://bit.ly/3mSmDYB>

### 현대차 원호로 사육 재개발 탄력, UAM 중심지 된다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현대자동차의 원호로 서비스센터 부지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현대차의 원호로 부지 재개발은 물론 UAM과 같은 미래사업 R&D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용산은 특히 UAM 연구개발 주요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 <https://bit.ly/3mP4bJB>

### Tesla's trunk latch and rear camera recalls extend to 200,000 more vehicles in China (electrek)

Tesla가 트렁크 래치와 후방 카메라 문제로 미국에서 50만대에 달하는 차량에 대한 두 차례의 리콜을 시작한 가운데, 동일한 리콜이 중국에서 20만대 차량으로 확대됨. 수리는 간단하고 저렴하나, Tesla 서비스 팀에 부담을 줄 전망. <https://bit.ly/3e0IUq>

### China to cut new energy vehicle subsidies by 30% in 2022 (Reuters)

중국 재무부는 '22년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NEV)에 대한 보조금을 30% 삭감할 것이라고 밝힘. 대중교통용 NEV의 보조금은 2021년에 10%, 2022년에 20% 삭감될 예정. 중국은 '25년까지 NEV 판매비중 20% 달성 계획한 바 있음. <https://reut.rs/3pMOGUB>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